

생명을 붙잡으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진짜 인생을 시작해 보세요.

_____님께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심장마비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당신이 오늘 삶을 마감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다섯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당신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요일 4:9~10).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요 3:16~17).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요 10:10).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것을 제안하십니다.

- ▶ 지금 바로, 의미 있고 풍성한 삶
- ▶ 앞으로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제안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주 외면당하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와는 다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머무르게 되는 걸까요?

②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결정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그 죄는 때로는 하나님을 대놓고 거스르는 적극적인 반항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관심한 태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사 59:2).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요일 3:4).

“의롭지 못한 모든 것이 죄이지만...”(요일 5:17).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찾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 없이 가능할까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또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나 종교적인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깊은 간격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죄가 남긴 결과는 그 어떤 인간적인 시도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③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내가 져야 할 죄의 값을 온전히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사 53:5).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롬 8:34).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요 14:6).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단절의 간격을, 직접 메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행 4:12).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엡 2:8~9).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 ▶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
- ▶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계 3:20).

두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길



이 경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끊이지 않는 의심, 불안함, 죄책감, 내면의 혼란 등.

②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길



이 길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안, 확신, 용서, 사랑, 새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삶.

이제, 다음 질문들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가 중요합니다.

- ▶ 지금 내 삶은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 ▶ 왼쪽 그림('나 중심의 삶')과 오른쪽 그림('예수님 중심의 삶') 중, 어느 쪽인가요?
- ▶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 ▶ 앞으로의 삶은 어떤 방향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 ▶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 삶에 모실 수 있을까요?

나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일은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래의 기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의 한 예시입니다.

기도

나의 주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제 삶에 들어와 주옵소서. 저는 제 힘으로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 노력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당신을 의지합니다. 악의 권세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저의 존재 전체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영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이 기도에 '네'라고 응답하실 수 있나요?

이 기도를 한 번 더 천천히, 마음을 다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의지와 진심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의지'는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착륙하실 수 있는 믿음의 착륙지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소리 내어 드려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저는 이 기도의 고백대로, 제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리 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모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이 당신의 삶을 향해 주신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요 6:37).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

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요일 1:9).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요일 5:12).

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당신의 새로운 삶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모셨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은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진리의 사실'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고후 5:17).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린 후에 마음이 벅차오르거나 감동적인 감정이 생겨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하며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진심으로 드렸는데... 문제는, 기대했던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사실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의 생일이 어떤 특정한 날이라고 해봅시다. 그날 당신이 아무런 '특별한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도, 그날이 당신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2 x 2 = 4' 또는 '4 x 4 = 16'이라는 산수의 기본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당신이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감정은 사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 엔지니어는 나중에 이렇게 말하며 안도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내게 이 단순한 원리를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내 삶에서 새로운 것 그리고 변한 것은 무엇인가?

-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습니다(계 3:20; 골 1:27).
- ②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골 1:14; 요일 1:9).
- ③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께 속한 사람입니다(요일 3:1).
- ④ 내 삶에는 이제 깊은 의미와 목적이 생겼습니다(요 10:10; 고후 5:14, 15, 17).
- 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요 14:15; 15:10, 11).
- ⑥ 나는 이제 예수님과 언약을 위해 '침례'를 준비하게 됩니다(막 16:16).
- ⑦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요일 5:12).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요 10:10).

삶은 성장입니다. 멈춰 있다면 사실은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 ▶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 ▶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 ▶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무르기 위해 힘씁니다.
- ▶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습니다.
- ▶ 나는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꾸준히 교제합니다.
- ▶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고백합니다.
- ▶ 침례받을 준비를 합니다.
- ▶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결정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결정을 약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혼은 보통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약혼 뒤에는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이 사람이 나의 반쪽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바로 이런 결혼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증하는 약속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막 16:16 개역개정). 제 편지를 여러 번 읽어보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지는지를 짧은 글 안에 가능한 한 잘 담아보려 애썼는데 어떠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의 글을 읽겠지요. 예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와 “말씀 읽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신약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를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14일 복음서 읽기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편지15 참고). 그리고 주제별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성경공부 교재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많은 나라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성경통신학교 참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이 새로운 신뢰의 관계를 어떻게 기쁨으로 지켜갈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 열쇠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편지에서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주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당신과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살아라. 나도 너희 안에서 살겠다”(요 15:4).

- 헬무트 하우바일과 친구 Kurt

- ▶ 추천: www.steps-to-personal-revival.info: Letters to Andrew
- ▶ 문의: juheeyeon@gmail.com

memo

